

봄따라 떠난 푸르른 길 마음속에 연분홍 색색 고운 향기만 품고 오다

키우리산악회 '영호남 합동 산행' 대구 비슬산



이희석
키우리산악회 총무

지난 11일 이른 아침 따스한 봄 햇살이 활짝 웃으며 반겼다. 이날은 키우리 정기산행일이다.

게다가 이번 산행은 영·호남 교류를 위한 합동 산행이라 더 설렜다. 개인적으로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어 준비에서부터 차질 없는 산행 진행까지 신경써야 하니 긴장감이 더 들었다.

산행 목적지는 대구 비슬산. 흔히 한국의 100대 명산 중 46번째로 꼽히는 절경이 뛰어난 산이다.

처음으로 찾은데다, 영남지역의 산악연구원과 호남지역의 산악협동연구원 산악회 회원들이 함께 하기로 해 그 어느때보다 신중한 산행을 준비했다.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일행을 태운 버스가 대구로 향했다. 늘 그렇듯 출발과 동시에 이것 저것 챙긴 후 잠시 시간을 내 명상을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산인지 내 발로 확인을 해야겠어"라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졌다.

버스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2차선 고속도로이며 4차선 확장공사 중인 88고속도로를 하염없이 달렸다. 차 안에서 바라본 본 풍경이 매우 정겨웠다.

3시간여를 달린 버스가 대구 비슬산 주차장에 도착하자 먼저 와 기다리던 대구 산악연산악회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일행은 산행에 나섰다. 비슬산(1천83.6m)은 대구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에 걸쳐 있는 군립공원이다. 비슬산 천왕봉을 중심으로 좌로 대견봉(1천34m) 우로 조화봉(1천58m)과 관기봉(990m)을 거느린 산이며 비슬산 암괴류는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다.

산행 코스는 비슬산 주차장에서 대견사를 거쳐 참꽃군락지를 감상하고, 유가사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다. 비슬산 자체가 풍경이 좋고 완만하지만 그래도 1천m이상의 산인지라 마음을 다잡고 산행에 나섰다. 간단한 산행 소개에 이어 출발 전 신발 끈을 조이고 나섰다. 처음 1km이상의 포장도로를 걸어가다 보니 '천하장군'이라고 쓰여진 장승이 일행을 보며 웃고 반겼다. 그 위로 오르다 보니 좋은 시가 적어져 있어 사진을 찍었다.

'달성을 알면 꿈을 갖게 되고, 달성에 오면 꿈을 꾸게 되고, 달성에 살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이렇다. "꿈을 갖고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산행중에 만난 '재건 1주년 기념법회'가 열리고 있는 비슬산 대견사. 멀리 바다 위의 등대처럼 우뚝 솟은 지상관측소가 보인다. 작은 사진은 위에서 내려다 본 대견사.



비슬산 대견봉 정상에서.



30여만평에 이르는 참꽃 군락지를 배경으로... 아직 이른 봄이라 꽃이 피지 않아 아쉬움만 남았다.

평지를 지나 산길을 오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들던 '삐보~삐보~' 소리가 울려왔다. 우리는 쉬지도 않고 올라갔고, 그 소리에 긴장한 터라 발걸음도 더 빨라졌다. 중간 정도 오르니 한 아주머니가 머리를 잡고 구급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아주머니 힘 내세요" 하며 우리는 응원을 보냈다.

갈 길이 멀고 계속 올라가야 하니 '으사~으사' 힘을 내며 올라갔다. 숨이 차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을 꺼내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니 박순례 회원이 아이스크림을 건넸다. 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색달랐다.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아이스크림과 꽃감을 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전날부터 얼려 꺼낸 것이다. 맛도 맛있지만 그 정성이 고마웠다. 산행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종종 느끼게 된다.

힘이 났다. 다시 산행모드. 한참을 오르다 보니 대견사에 도착했다. 대견사에 도착하니 재건 1주년 기념법회를 축하해 사물놀이패가 연주

를 하고 있었는데 "비슬산 대견사에 어서 오세요"하며 나를 반기듯 풍악을 울려왔다.

대견사 행사장에서 따뜻한 음식과 커피를 나눠주는 자원봉사대를 지나 참꽃 군락지가 있는 높은 곳을 올라갔다.

천연기념물 435호인만큼 백곰바위, 뽕뽕바위, 상감모자바위, 형제바위, 소원바위, 참선바위, 기바위, 층층바위, 큰거북바위, 코끼리바위, 부처바위, 톱(갈)바위 역시 다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난 그 중 한 바위에서 소원을 빌었다. "키우리산악회의 안전을 지키 주고, 매일 많은 회원들이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다시 산행에 나서자 참꽃 군락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 30여만평에 달하는 참꽃 군락지에 꽃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이른 것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걸으니 허기가 몰려왔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 점심 장소로 향했다. 일행 중 상당수는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몇몇 회원과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니 그야말로 낙원이 따로 없었다. 주변 풍경도 한 눈에 들어왔다. 늘 그렇듯 빠르게 점심을 먹고 다시 산행에 나섰다.

일행은 천왕봉과 대견봉 등 두 팀으로 나눠 가기로 했다. 다소 완만한 대견봉을 선택했다. 대견봉은 기대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했다. 게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인지 사진 한장 제대로 찍기 힘들 정도였다.

아름다움을 뒤로 하고 하산에 나섰다. 얼마쯤 내려 왔을까. 시원한 계곡에서 흘러난 맑은 물이 주차장으로 향하니 시가 새겨진 비석이 한 눈에 들어온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 오리다'

/글=이희석(키우리산악회 총무)

/사진=이광호(광주매일신문 시민기자)



산행에 앞서 단체사진을 찍은 키우리 회원들과 대구 산악연산악회 회원들.

www.가족회관.kr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남도 전통 한정식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의 모십니다.

점심특선 한정식(1인 18,000원, 3인 이상 15,000원)

저녁한정식 2만 5천원~10만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영화의 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매: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명)★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1렘버십 동안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유고의 리라:하늘고래의 구름심 대모험장수상회	전체관람 12세
2관	은하철도의 꿈/코블러/스물	전체관람 15세/15세
3관	스물	15세
4관	분노의 질주:더 세븐	15세
5관	코블러/스물	15세
6관	장수상회	12세
7관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분노의 질주:더 세븐	청소년불가 15세
8관	분노의 질주:더 세븐/워플래쉬	15세
9관	한 번 더 해피엔딩/송 왕/파울볼	15세/15세 전체관람
10관	엘리노어 핵비:그 남자 그 여자/화장	15세 청소년불가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상무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명)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1렘버십 동안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스물	15세
2관	분노의 질주:더 세븐	15세
3관	장수상회	12세
4관	화장	청소년불가
5관	은하철도의 꿈/워플래쉬/한 번 더 해피엔딩	전체관람 15세/15세
6관	올리비아 핵비:그 남자 그 여자/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	15세 청소년불가
7관	스물	15세
8관	장수상회	12세
9관	분노의 질주:더 세븐/코블러	청소년불가 15세
10관	분노의 질주:더 세븐	15세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하남

※매일 심야영양합니다!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무료주차 3시간 복구보건소 건너편

은 동네가 바라는 첫사랑이 시작된다!

1관	분노의 질주:더 세븐	15세
2관	화장 장수상회	청소년불가 15세
3관	코블러/워플래쉬/스물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	15세 15세/12세 청소년불가
4관	스물	12세
5관	엘리노어 핵비:그 남자 그 여자 코블러/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	15세/15세 청소년불가
6관	분노의 질주:더 세븐	15세
7관	장수상회	15세

메가박스전대